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대표명소 둘러볼까

G.MAP, 미디어파사드 8개 작품  
광주독립영화관 인터랙티브 월  
아시아문화전당·남구청사 ‘눈길’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남구 천변로에 등지를 뜬 광주 최대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그 역작이라 할 수 있다.

광주는 G.MAP을 중심으로 매년 가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느새 광주는 발 닿는 곳곳이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야외 전시 관람이 딱 어울리는 계절을 광주의 미디어아트 명소를 소개한다.

### ●G.MAP ‘미디어파사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G.MAP 외벽의 대형 미디어파사드다. 이곳에서 총

8개 작품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송출하고 있다.

오는 5월 2일까지 상영되는 작품을 살펴보면 △‘테크네’는 문명을 이룩한 인류 역사를 ‘손’으로 형상화, 손을 통해 테크네로 표상되는 인간 주체의 문화사를 표현한다.

△‘Eternal Lights’는 영원한 빛을 주제로 무등산 호랑이와 무등산이 배경인 디지털 십장생도가 펼쳐진다. 일상의 염원과 소망을 나타낸다. △‘Four Seasons, Memory’는 아티스트 협업작으로 오명희 작가(수원대 명예교수, 2022 유러피안 컬처센터 주관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초대작가)의 ‘Memory’ 작품을 미디어화 했다. 낙화 및 소멸되는 순간의 절정을 포착한 장면들을 한국의 사계로 표현, 다시 화려하게 피어나는 광주의 정신을 부각한다. △‘Poetic Tree’는 디지털 시화 컨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공간 위에 김소월, 윤동주의 시가 연출된다. 무수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빛을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외벽에 설치된 T자형 인터랙티브 월의 모습.

잃지 않는 우리 문화와 정신을 상징적으로 포착한다.

이 외에도 8월 4일까지 △Dessert Showcase △빛의 혀 △서로를 물들이는 빛 △헤테로포니: 10년의 연주 등이 이어진다.

### ●영상복합문화관 ‘미디어월’

광주독립영화관이 있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외벽은 G.MAP을 잇는 신생 미디어아트 명소다.

독특한 형태의 T자형 미디어월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10월 구축 완료된 이 미디어월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 월’이다.

인터랙티브 월은 기존의 미디어 월과 달리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성격의 화면으로 시민참여 콘텐츠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영작은 T자형 폴스크린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와 지역 홍보 콘텐츠로 나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양한 미디어

어작품 등을 송출하고 있다.

△‘STAR Rush’는 우주인 토끼를 통해 밤하늘에 별빛이 수놓아지는 과정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사랑스러운 토끼를 메인 캐릭터로 설정해 대중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했다. △‘Time of May’는 5시 18분 5·18민주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연계한 콘텐츠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5·18 정신을 아트워크로 표현했다. △‘Taste of Gwangju’는 광주7미와 대표 음식인 애호박씨게 이미지를 차용한 콘텐츠로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가 입맛을 다시게 한다. △‘Gwangju POP’는 남녀노소에게 익숙한 인형 뽑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이미지다. T자 화면으로 이어지는 인형뽑기 과정이 재미를 이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미디어아트를 실시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에스컬레이터 미디어, 남구청사 곡면 미디어월이 꼽힌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광주 거리예술 프린지 아카데미’ 참여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 내달 7일까지

광주문화재단은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광주 거리예술 프린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 이에 참여할 공연예술 단체를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올 9월에 개최 예정인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광주만의 거리예술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광주 거리예술 프린지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광주 거리예술 프린지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거리예술 프린지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광주 공연예술단체는 거리예술 전문가를 통해 멘토 지정받는다. 전문가 멘토 1명당 5개 단체가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멘토링 과정은 공통워크숍 1회, 팀별 멘토링 2회, 작품제작 계획 발표회 1회로 운영되며 7월까지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멘토들의 심사를 통해 2~4개 작품을 선별, 오는 9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의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우리동네 프린지’와 같은 분산형 행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기간과 연계하여 오는 9월 집중적으로 개

최할 예정이다. 크게 ‘거리예술 축제’와 ‘스트리트댄스 축제’ 두축으로 페스티벌로 개최되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거리예술 분야와 스트리트댄스 분야로 각각 신혜원·조숙영 예술감독을 위촉한 바 있다.

신혜원 예술감독은 현재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축제 기획을 지도하고 있으며 포항거리예술제, 노원거리예술제, 의정부 음악극축제,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서 예술감독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연극비평협회에서 ‘Something Missing’이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을 수상한 것 외에도 다양한 수상 이력과 연출작품의 해외 진출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사)한국거리예술협회 협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 거리예술축제의 총괄 연출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동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수 및 빛고을댄서스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조숙영 예술감독은 올해 스트리트댄스 축제 총괄 연출을 맡았다. ‘로로’라는 활동명 워킹댄스 분야 전문가로서, 빛고을댄서스 팀원들과 함께 ‘베를라인업 in 광주’를 성공시키며 광주를 스트리트댄스의 메카로 만든 주역 중 한 명이다. 광주시장 배안무상, 충북실용무용대회 우수지도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다양한 공연의 안무 지도와 댄스배틀 행사 기획 및 심사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 한국예술의 정점에 선 명인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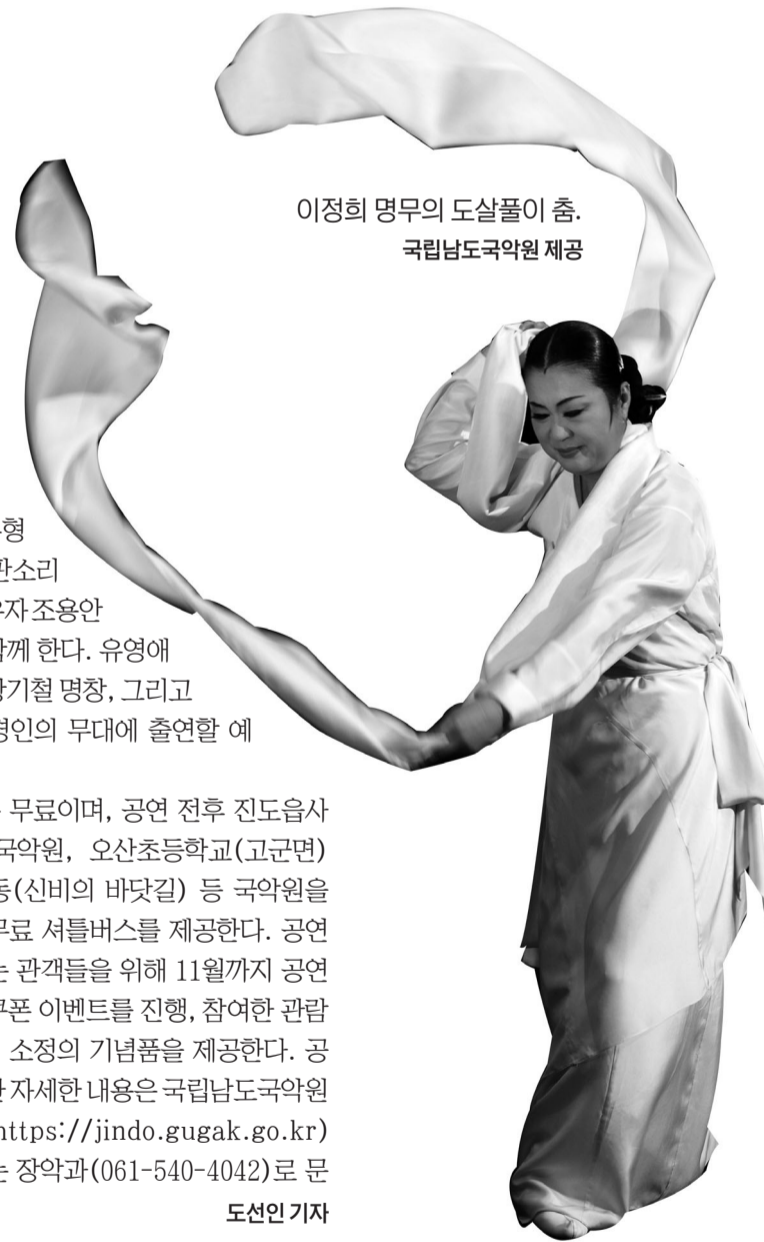
27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으로 기획공연 명인전 I ‘정수(精髓)’를 오는 27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명인전에 한국 전통 예술계의 정점에 선 명인과 명무를 초청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최경만 명인의 ‘호적풍류’, 유영애 명창의 심청가 중 ‘추월만정-황성 올라가는 대목’, 이정희 명무의 ‘도살풀이 춤’, 김영길 명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마지막으로 왕기철 명창의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한국 전통음악에서 즉흥성을 갖춘 음악인 ‘호적풍류’로 공연을 시작한다. ‘호적풍류’를 연주하는 최경만 명인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삼현육각 보유자로 현재 삼현육각 보존회 회장이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가 환생하여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과 맹인잔치에 참석하는 심봉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심청가 중 ‘추월만정-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유영애 명창의 소리로 만나볼 수 있다. 유영애 명창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이며, 남원춘향제 명창부대통령상을 수상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 중 한 명이다.



이정희 명무의 도살풀이 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작품 반 주를 위해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장단보유자 조용안 명인이 함께 한다. 유영애 명창과 왕기철 명창, 그리고 김영길 명인의 무대에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ACC재단이 개발·출시한 기획전 ‘길 위의 도자’ 연계 상품 양초. ACC재단 제공

## ACC재단 ‘길 위에 도자’ 연계 문화상품 4종 출시

“ACC 기획전시와 연계한 문화상품을 구입해 전시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 도자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질감과 소재로 만나 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개막한 2024 ACC 아시아네트워킹 ‘길 위에 도자’ 전시와 연계한 문화상품 4종을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막한 전시 ‘길 위에 도자’는 아시아 외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대 도자를 이주의 경험을 가진 작가 4명

의 작품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다.

ACC재단은 전시 작품의 조형성과 이미지, 특징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감과 물성을 가진 소재를 접목하여 참여 작가별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베트남·멕시코계 미국 도예가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家的 ‘금빛 돌이 박힌 미드나이트 허스키’ 작품을 약 심분의 일 크기로 축소한 양초 상품을 선보였다.

한국계 미국 도예가인 세 오 작가와 ‘자

화상’ ‘분노’ ‘물양귀비’ 등의 작품을 소재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도안이 변화하거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인쇄물인 ‘렌티큘러’ 엽서와 우표 스티커 세트 상품을 만들었다.

한국계 미국 도예가인 스티븐 영 리 작가와 ‘독수리구름문야매병’ 등 4개 작품을 활용해 재사용이 가능한 스티커 세트 상품을 제작했다.

이번 ‘길 위에 도자’ 연계 상품은 3000원에서 2만8000원 사이 가격대로 ACC 문화상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